

最近의 貿易動向과 示唆點

김 경 수*

1. 序

지난 4월 UR협정에 대한 최종의정서와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협정문이 확정됨으로써 2차대전후 47년간 세계교역질서를 지탱해온 GATT 체제가 막을 내리고,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WTO 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WTO 체제는 그동안 우리 경제가 의존해온 자유무역 체제를 더욱 확산시키는 기능을 갖추므로써 개방화·국제화를 지향하는 우리 경제에 유리한 국제경제질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교역국의 관세인하, 자의적인 수입규제의 제한 등은 우리 수출이 세계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우리 경제는 개방의 폭을 넓혀야 하며, 국제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제도를 국제화시켜야 하는 부담이 파생되고 있다.

WTO 체제는 국제무역이 공정한 룰에 의하여 엄격하게 시행되도록 유도하고 감시하는 등 궁극적으로는 국경없는 세계 경제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수입제한과 보조금

지원을 통한 산업육성 및 무역수지 관리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따라서, 과거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약했던 무역수지 적자문제의 해결을 비보조금적인 산업지원수단을 통한 산업전반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거시경제정책 조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수단에 의해서 우리 경제가 무역수지 균형 내지는 흑자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WTO 체제하에서 정책수단은 한정되어 있고 직접적인 보조금적 지원수단은 3~5년 이내에 철폐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무역흑자 달성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시급한 시점에 와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最近의 무역동향 개요

(1) '80년대 이후의 무역수지와 수출경쟁력

우리 경제는 1985년까지는 만성적 적자를 보여오다가 1986~1989년까지 4년동안 역사상 최초로 흑자를 시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수지 흑자현상은 1990년부터 다시 적자로 반전, 1991~1992년에는 각각 70억달러, 22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

* 商工資源部 貿易政策課 待遇 書記官

〈표 1〉 1986~1993년중 수출입실적 및 무역수지

(단위 : 100만달러)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수 출	34,714	47,280	60,696	62,377	65,015	71,870	76,631	82,236
수 입	31,583	41,019	51,810	61,464	69,843	81,525	81,775	83,800
무역수지	4,206	7,659	11,445	4,597	-2,004	-6,980	-2,198	2,077

주 : 수출·수입은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국제수지기준

며, 다행히도 1993년에는 수출이 7.3%의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수입은 2.5%의 안정세를 유지함으로써 무역수지는 1989년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시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90~1992년 동안에 다시 무역적자로 반전된 것은 해외경기의 부진에 기인하고 있는 부분이 크지만,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균형되게 유지되지 못하고 고비용 저생산구조의 고착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것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기간동안 수출구조를 보면 重化學製品의 수출은 3년 연속 두자리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輕工業製品의 부진은 더욱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상품별 수출구조 추이

(단위 : %)

	1990	1991	1992	1993
전체 수출증가율	4.2	10.5	6.6	7.3
중화학제품 증가율	6.5	17.3	11.7	13.0
경공업제품 증가율	2.3	1.7	-0.9	-2.3
1차산품 증가율	-4.2	2.5	-1.5	-2.1
중화학제품 비중	56.5	59.9	62.7	66.1
경공업제품 비중	38.5	35.5	33.0	30.0
1차산품 비중	5.0	4.6	4.3	3.9

경공업제품은 이미 선진국시장에서 중국·아세안국가 및 멕시코 등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하였고, 일부 중화학제품에서도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산업전반의 수출경쟁력

저하는 무역수지 적자반전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2) 금년도 수출입동향

금년 들어 우리 경제는 1993년 하반기 6%대의 성장에서 8% 내외의 성장국면에 진입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예상외로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고성장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어 연간 베이스로 무역수지 흑자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

금년도 상반기 수출입동향을 들여다보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2.7% 증가한 439억달러를 기록하여 연초에 전망한 연평균 9.4%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수출 내용면에서는 여전히 전자·선박·자동차 등 중화학제품이 전체 수출을 선도하고 있으나, 경공업제품도 직물을 중심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4년동안 계속 감소된 대선진국 수출도 활력을 되찾고 있다.

한편, 수입은 상반기중에 전년동기대비 14.8% 증가한 474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국내경기 활성화에 따른 자본재 수입이며, 다음으로 소비재 수입이 높은 증가율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같이 수출입 내용이 견실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입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함으로써 상반기중 수출입차는 35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표 3〉 1994년 상반기 수출입실적

(단위 : 억달러, %)

구 분	1994. 1~6	1993. 1~6
수 출	439(12.7)	389(6.0)
수 입	474(14.8)	413(△1.5)
수 출 입 차	△35	△27

3. 수출입 증가요인 분석

(1) 수출 호조 요인

금년도 우리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의한 해외수요의 확대 및 엔고현상의 지속, 그리고 그동안 산업구조 조정에 따라 산업경쟁력 강화를 그 요인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선진국 경기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 경제가 지난해 4/4분기 7.0% 성장한 이래 금년 1/4분기에도 2.6%의 견실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일본 경제도 금년 1/4분기 3.9%의 성장률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IMF, OECD 등에 의한 금년도 선진국 경제성장 전망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선진국 수출여건은 매우 좋은 상황이다.

〈표 4〉 선진국의 수입 및 우리나라 수출증가를 추이
(단위 : %)

	'86~'88	'90~'92	'93	'93.4/4	'94.1/4
선진국 경제성장률 (미 국)	3.4 3.0	1.6 1.0	1.2 3.0	- 7.0	- 2.6
선진국 수입증가율 (미 국)	14.6 9.2	8.3 4.1	6.7 9.0	- 8.5	- 10.2
(일 본)	12.8	3.5	3.3	2.8	5.9
대선진국 수출증가율 (미 국)	29.5 25.8	0.4 -4.2	2.2 0.3	2.3 3.4	8.4 ^① 3.7
(일 본)	38.2	-4.8	-0.3	3.6	14.8

주 : ① '94. 1~5월중 수출증가율

금년에 전망되고 있는 3%대의 선진국 성장률은 우리나라가 혹자를 보였던 1986~1988년의 선진국 성장률 3.4%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1986~1988년 평균 대선진국 수출증가율이 29.5%인 데 비해 금년 1~4개월 동안의 증가율이 8.3%에 그치고 있지만 그동안 대선진국 수출이 극히 부진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금년에 들어 선진국 수출

은 뚜렷이 증가추세로 반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수출 호조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엔고현상이다.

1990년 이후 엔화의 대미달러환율 동향을 보면, 1991~1992년동안 달러당 125엔대에 머물렀으나, 미국의 막대한 대일무역적자 등으로 인하여 1993년부터 다시 엔고가 진전되어 1993년말에는 달러당 111엔 수준까지 엔고가 진전되었다.

금년 들어서는 완만히 엔고가 진전되어 5월중 한때 101엔 수준까지 근접하였으나, 엔고-달러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선진국의 외환시장 공동개입과 금리협조로 5월 말까지 104엔대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6월 들어 엔화환율이 100엔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엔고추세가 반영되어 금년도 원화의 대엔화환율은 지난해에 버금가는 11.6% 상승하였다.

〈표 5〉 엔화환율 추이

	1990	1991	1992	1993	1994.1	1994.2	1994.3	1994.5	1994.6.22
환율(W/100¥)	532.4	507.2	633.0	722.5	748.9	774.5	780.4	771.6	806.3
변동률(%)	-11.3	-12.3	-4.1	-12.4	-3.5	-6.7	-7.4	-6.8	-11.6
¥/US\$	134.4	125.2	124.8	111.8	109.5	104.3	102.8	104.4	100.2

이러한 엔고효과가 침투되어 우리나라의 대일수출은 1993년 하반기 이후 증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전자·기계·자동차 등 일본과 경쟁되고 어느 정도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 금년도 수출증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수준의 엔/달러 환율은 일본기업의 채산성이 유지되는 환율수준(일본기획청 조사에 의하면 117¥/\$)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일본기업의 금년도 사업계획시 환율수준(105¥/\$)을 상회하고 있어 일본기업

의 엔고대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본기업은 엔고 상승분을 수출가격으로 전가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한계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수출가격 인상을 연속적으로 단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OEM 공급 주문도 계속 늘어나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엔고추세가 어디까지 진전되고, 우리 기업이 어떻게 이용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다. 1986~1989년 무역수지 흑자기는 엔고-원화환율의 저평가 시기로서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하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최근 신엔고시대를 맞이하여 단기적인 가격경쟁력 회복과 수출물량 확대에만 주력할 경우 앞으로 엔고의 과급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수출 호조는 그동안 산업구조 조정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출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화학공업 및 일부 경공업은 1992~1993년 동안의 전반적인 투자부진 속에서도 높은 투자증가율을 유지해 왔으며, 제품의 질적고도화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구조고도화는 금년 들어 우리 수출증가율이 홍콩, 대만을 상회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금년도 수출확대는 대략 상기 세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나타난 결과이지만, 산업의 구조조정 결과에 따른 국제경쟁력 향상이 차지하는 부분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엔고라는 외생적 요인에 반사적으로 우리 수출이 증가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수출증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엔고를 내생화시킬 수 있는 산업경쟁력 향상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은 재언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표 6〉 주요 업종별 수출 및 투자증가율 추이

업종별	수출증가율(%) 투자증가율(%)					질적고도화
	1993	1994.1~4	'92	'93	'94	
전기·전자	12.3	19.0	-0.8	44.2	64.4	· 21인치 이상 CTV 생산 확대 (8→27%) · 등 대형 고급품 생산 확대 · 4~26M DRAM 투자 확대 · 컴퓨터 고급기종 생산 확대 및 부품고급화 · LCD 투자 확대
자동차	58.0	7.1	-5.0	16.7	74.6	· 수출차종의 다양화
화학	12.2	19.2	52.3	0.1	6.0	· 고숙방사, 신합섬 등의 신제품 및 차별화 제품 투자 확대
평균	7.3	10.7	-13.7	-4.0	53.2	

주: 투자증가율은 산업은행 조사결과이며, 평균은 제조업임.

민관이 확고히 인식해야만 하는 것은 산업경쟁력 향상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며,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시점이 산업경쟁력 향상의 호기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금과 같은 수출확대기조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민관이 얼마나 지금의 호기를 산업경쟁력 강화로 연결시켜 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수입증가 요인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크게 늘어 수출입차가 확대되고 있는데,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입증가는 대별하여 국내경기의 회복과 산업구조의 낙후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우선, 국내경기 측면을 살펴보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4분기를 저점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으며, 특히 설비투자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금번 경기회복기 직전의 수입증가율 추이

를 보면, 경기회복과 설비투자 확대에 따라 수입증가율이 가속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년 상반기 14.8%의 수입증가율을 상반기 추정성장률 7.8%에 대비하여 수입탄성치를 구하면 1.89로 대략 1990~1991년도 수준에 해당하며, 따라서 금년도 수입증가율은 과거 경기회복기의 수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금년도 수입증가는 내수경기의 빠른 회복에 의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수입증가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은 부품·기계산업의 취약성이다. 우리 제조업의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10.8%(1990년, 산업연관표)로서 일본의 3.0%(1988년)의 3배 이상의 수준이며, 그 결과 가공제품 수출시 부품수입 증가가 동반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무역통계에 의하면, 1994년 1~4월 동안 자동차 수출 7.1% 증가에 대비하여 자동차부품 수입은 35.1% 증가하였고, 전자부품중 자기헤더, 액정디바이스는 각각 37%, 126%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품뿐만 아니라 시설재도 설비투자 확대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지 않을 수 없는 산업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기계산업의 발전에 따라 시설재중 수입 시설재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아직은 37.1%

로 일본의 4.3%(1988년)에 비해 10배 이상의 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 20억달러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설비투자 부진으로 기계류 적자가 축소된 데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일반 기계류의 적자는 1992년 105억달러에서 1993년에는 90억달러로 축소). 결국, 앞으로 수입증가 속도는 내수경기의 진전상황과 부품, 기계산업에서의 국제경쟁력 향상이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4. 向後政策 示唆點

WTO 체제는 기본적으로 각국의 무역산업정책을 동질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경 없는 세계경제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균형이라는 정책목표는 과거와는 달리 간접적인 정책수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있다. 그렇다고 대외무역균형의 중요성이 퇴색된 것은 아니며, 무역수지의 흑자를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장기적인 성장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최근 무역동향을 보면, 우리 경제는 아직도 무역수지 흑자를 자생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대외적 측면에서 해외경기의 회복과 엔고, 대내적 측면에서 국내경기동향 요인은 경기순환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 요인을 제외한 산업전반의 국제경쟁력과 특히 기계산업의 국제경쟁력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가장 중

(44 page에 계속)

〈표 7〉 1989.7~1991.1 경기회복기의 수입증가율 추이

(단위 : %)

	1989	1990	1991
경제성장률(A)	6.8	9.3	9.1
설비투자증가율(B)	12.3	18.4	12.8
수입증가율(C)	18.6	13.6	16.7
[자본재(D)]	17.5	13.8	18.2
탄성치(C/A)	2.7	1.5	1.8
(D/B)	1.4	0.8	1.4

능을 저하시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Michelin은 현재 다른 방법으로 연비를 높일 수 있는 타이어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다. 즉, “그린타이어(green tire)”를 만들어 연료절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그린타이어”는 현재는 과거의 “XFE기술”로 만들지 않고 “XSE기술”로 만들고 있다.

Michelin은 이 타이어는 건조한 노면에서 견인력 좋으며, 수명도 길면서 회전저항이 적고, 빗길이나 눈길에서도 견인력이 좋다고 말하고 있다. Michelin은 이 “그린타이어 기술”을 몇가지 고성능 및 전천후 타이어에 응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린엑스(Green X)”라고 명명되어질 이 타이어는 북미에서 생산되는 1994년형 Honda Accord EX 자동차에 독점적으로 장착될 것이며, 또한 1994년형 Audi 80/90 및 BMW 3시리즈, 대부분의 Mercedes

-Benz S클래스 자동차에도⁴ 장착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연료절약형 승용차용 타이어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판매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있으며, 또한 1970년대의 석유파동과 같은 유가폭등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소비자들이 연료절약형 타이어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또는 연료를 절약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형태의 큰 이익을 주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일어날지도 모른다. 오늘날의 “공상과학소설”이 종종 내일의 실질적인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 : Bob Ulrich.

자료 : Modern Tire Dealer, November 1993

번역 : 李源善/協會 常勤理事

<16 page에서 이어짐>

요한 과제는 산업경쟁력 특히 기계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향상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볼 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비용-저생산성 구조를 탈피할 수 있도록 질 좋은 생산요소를 원활히 공급하고, 정부규제를 보다 과감히 개혁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산업지원제도 개편도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의 계기로 삼아 민관 합동으로 적극 추진하고, 기업활동의 세계화추세에 부응하여 산업경쟁력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민관의 대응방향을 정립해나가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의 핵심과제로서 기계공업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보조금적 산업지원수

단이 3~5년 이내에 철폐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개별산업의 육성은 극히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기계산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를 발굴하는 노력을 집중한다면 통상마찰의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산기계류의 수요확대를 위하여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자금의 확대, 해외시장에서의 기계류 마케팅 강화 등은 좋은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기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굳건히 하지 않으면 투자확대→자본재 수입증가→무역수지 악화라는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으며, 결국 WTO 체제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화·국제화를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